



##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The Forms of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Associations in Medieval Korea

---

저자 (Authors)	채상식 Chae, Sang-Sik
출처 (Source)	<a href="#">한국민족문화</a> , (45), 2012.11, 51-87 (37 pages) <a href="#">Journal of Koreanology</a> , (45), 2012.11, 51-87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a>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5039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50394</a>
APA Style	채상식 (2012).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한국민족문화, (45), 51-8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4 15: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채 상 식\*\*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경향과 추이
3. 향도의 몇 가지 사례 검토
4. 향도의 성격
5. 맺음말

### <국문초록>

香徒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김유신의 낭도를 미륵향도라고 한 사례이다. 이러한 향도를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향촌(지연)공동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향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생각한다.

향도는 향을 매개로 한 신앙조직이다. 향은 초기에는 왕실과 귀족에게 독점되어 불교의식과 治病, 산천에 제사를 모실 때에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향도를 조직한 구성원들의 신분과 계층은 상층 지배층에서 중간 신분층과 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김유신의 용화향도 단계에서 신라통일기를 이어 고려중기까지는 향도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상층 신분층과 토호층이었으며, 여기에 물론 다수의 민들이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중기 이후 향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향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chauss@pusan.ac.kr)

도는 상당히 분화가 이루어져 민들도 독자적으로 향도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말에는 매향이 해안지역에 한정되긴 했지만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물론 향도는 일차적으로 향을 매개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존재하였지만, 일부 상당히 큰 규모의 경우는 향도를 주도한 세력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지역을 통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향도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역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어떻든 향도는 불교의 신앙결사의 한 형태이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된 특징이 있다. 향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행을 통해 解脱·涅槃에 이르는 것이었다. 아울러 향도는 造石·造像·造塔·造鐘 등 불교의 상징 조형물의 조성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공동 마련이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念佛 수행의 계획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도는 고려후기를 지나 여말선초에 이르면 불교가 퇴조함에 따라 향도의 성격이 변질된다. 이러한 중에 일부 도서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적 요소와 미륵신앙이 결합한 埋香 신앙이 유행하였다. 곧 신앙공동체로서 향도의 기능이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탈각해가면서 본래부터 포용하고 있던 민간신앙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곧 향도는 불교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祀神團體的’인 기능이나, 향촌사회의 상부상조하는 ‘契’의 성격을 갖는 존재로 변신하게 되었다.

\*주요어: 향도, 미륵향도, 신앙공동체, 향촌공동체, 매향(埋香)

## 1. 들어가면서

삼국시기부터 조선시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향도가 중요한 연구주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금석문 자료로서 심심찮게 새로운 자료들이 출현하기도 하여 지역사 연구와 불교신앙 관련 연구 주제로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향도의 존재양상에 관한 자료 정리와 연구는 제법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향도의 성격과 기능이 어떠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향도가 공동체 조직으로 契의 시원적인 형태라는 견해와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띤 조직,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등의 여러 견해들이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견해 중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은 향도가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같은 성격으로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향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개별적인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sup>1)</sup>

그러면 이와 같이 향도가 시기별로 성격 변화가 있었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시기는 언제일까. 대체로 사회변동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삼국시기 향도가 발생한 시기이다. 둘째, 사회변동의 폭이 컸던 신라통일기 이후 고려초까지의 시기이다. 셋째,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까지의 시기이다.

이와 같이 향도가 시기별로 상당한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향도의 출현은 불교수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불교계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향도는 ‘좁’을 매개로 한 불교신앙 형태이며, 공동체 조직으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향도가 불교수용과 함께 나타난 공동체라면 불교계의 변화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 김필동, 「삼국~고려시대의 香徒와 契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김필동, 『韓國社會組織史研究』, 일조각, 1992;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국사관논총』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蔡雄錫,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具山祐, 「佛事를 통해 본 향촌사회의 내부 질서」,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研究』, 해안, 2003; 李海濬,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14, 5세기 埋香事例의 分析-」,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李海濬, 『조선시기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불교수용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후 불교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교종파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불교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통불교’, ‘회통불교’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통일적인 불교를 특히 강조한 원효를 접하면 그런 면이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불교의 발전된 단계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종파가 우리 불교에서도 엄연히 존재하였다. 다만 조선초에 국가 권력에 의해 불교종파가 통합됨으로써 종파가 우리의 불교전통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시기까지 불교종파는 더욱 성행하여 존재하였다.

대체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이후 종파가 성립되는 시기에 이르면 불교는 크게 변화, 발전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거쳐 통일기에 이르면 불교종파가 출현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대중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불교와 다양하게 연결된 사회계층(신분)과 지역적 확산을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불교의 관념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곧 신라통일기에 불교대중화가 진행되면서 향도의 성격은 크게 변화했다고 하겠다. 이때 종파 성립 이전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독점하던 불교신앙이 계층적·지역적인 측면에서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단계로 서서히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의 문제는 신앙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본질과 현상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양자를 매개해 주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당시 불교신앙 중에 서민대중들과 가장 가까웠던 신앙은 정토신앙이었다. 정토신앙은 초기에는 불국토사상·신앙으로 표현됨에 따라 여러 신앙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곧 미분화된 형태로서 복합성을 띠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 학계에서 불교가 전래·수용된 이후 존재한 ‘香徒’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역사적 흐름 속에 그 존재 양상은 어떠했으며 그 신앙기반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2) 蔡尙植, 『佛敎思想論』,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지식산업사, 1997.

3) 위의 논문: 박성배, 『체(體)와 용(用)의 논리』, 『몸과 몸짓의 논리』, 민음사, 2007; 박성배, 『한국사상과 불교』, 혜안, 2009.

향도의 성격이 지역공동체와 연관되는지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다만 검토 대상으로 삼은 시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향도에 대한 각 시기 별의 특징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점과 신앙기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2. 연구의 경향과 추이

향도에 관한 기왕의 논의들은 향도가 불교와 관련된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같지만, 문제의식과 관심 영역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각도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契와의 관계 및 계의 기원 문제와 관련한 관심이다. 둘째, 불교의 신앙결사로서 신앙공동체라는 견해이다. 셋째, 향도를 향촌공동체로 파악하고 촌락구조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관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4)</sup>

먼저 향도를 契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했던 견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찍이 李晬光은 “우리나라 민속에 모든 中外의 鄉邑坊里에서는 계를 만들어 서로 糾檢하는데 이를 香徒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金庾信의 龍華香徒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李圭景도 香徒米 또는 香徒稷에 관한 자신의 관찰을 통하여 당시 喪輜擔軍으로 기능하던 香徒契(=喪徒契)를 契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sup>5)</sup>

이들의 견해는 조선후기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부분적인 관찰에 기초한 것이어서 향도의 본래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향도에 관한 인식 태도는 근대역사학 성립 이후 초기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金庠基는 “香徒는 원래 花郎과 관련을 가진 명칭임은 金庾信이 15세에 花郎이 되매 時人이 浚然히 服從하여 龍華香徒라 號하였다는 것으로서 알 수 있으며, 그 뒤 각종의 香徒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 아래에서 結社하여 움직여 오다가 고려말부터 조선조 중경까지

4) 김필동, 앞의 논문, 1986, 68~72쪽에 정리한 연구사를 참고하였다.

5)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研究』, 박영사, 1964(개정판 1974), 98~101쪽.

는 契의 구실을 하였으며 그것이 다시 轉變하여 喪徒稷로 불리어지기에 이르렀다”<sup>6)</sup>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곧 그는 향도가 본래 화랑·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고려 이후는 일종의 계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白南雲과 최남선도 향도를 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7)</sup>

이상의 견해에서 香徒가 契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의의가 인정된다. 다만 삼국에서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신앙공동체 또는 결사로서 존재했던 향도의 역사적 실체를 시기별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일관되게 이해한 것은 약점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김필동은 향도가 불교의 자발적인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직원리가 계의 기원이 되었다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8)</sup>

그는 향도가 불교 수용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동체적인 유제와 불교 수용 이후 신앙공동체적인 요소가 서로 결합한 형태였으나, 불교대중화를 기초로 한 중세불교 성립 후에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았다. 물론 신라말이나 고려초의 관련자료 가운데 일부 보이는 지역(향촌)공동체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이를 전 향촌사회의 조직체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적인 성격이 기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 곧 향도는 우선 무엇보다도 불교 신앙 결사의 한 독특한 형태이며, 고려말에 이르면 불교적 결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집단에도 그 명칭이 사용되면서 변질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삼국 시기에서 고려시기의 香徒는 일관해서 그 성격이 불교의 신앙공동체로서 결사였다는 견해이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今西龍과 黃淇江 등의 견해를 들고 있다. 이들의 견해들은 향도에 대한 구체적·실증적 연구 결과라기보다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내린 간단한 정의에 불과하나 향도에 대한 성격 규명에는 일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6) 金庠基, 『高麗時代史』, 동국문화사, 1961;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783~784쪽.

7) 김필동, 앞의 논문, 69~71쪽.

8) 위의 논문.

어떻든 香徒를 불교의 신앙 결사의 한 형태로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향도가 나름대로의 뚜렷한 목적을 지향하였으며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된 단체라는 점이다. 향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경우이나 佛道の 수련을 통해 解脫·涅槃에 이르는 것이겠지만, 각 향도는 造石·造像·造塔·造鐘 등 불교의 상징 조형물의 조성이라는 나름대로의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공동 마련이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행사에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염불 계획의 수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물론 신라말이나 고려초의 관련자료 가운데 일부 보이는 지역(향촌)공동체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이를 전 향촌사회의 조직체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적인 성격이 기반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곧 향도는 고려말에 이르면 불교적 결사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집단에도 그 명칭이 사용되면서 변질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삼국~고려시기의 香徒는 일관해서 그 성격이 불교의 신앙공동체로서 결사였다고 파악한다.

다음은 이러한 향도를 신앙공동체로 보지 않고 향촌공동체의 성격을 가졌다는 방향으로 견해를 개진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향도를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향촌(지연)공동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선구적인 성과는 이태진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sup>9)</sup> 그는 향도가 ‘본래 불교의 祈佛團體’였다고 보는 점에서는 이전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불교가 융성한 신라·고려에서 그것은 촌락 사회의 구조와 성장에 밀착되어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sup>10)</sup>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그는 여말선초에 이르러 “불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淫祀’의 祀神團體에 불교적인 용어로서의 향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9) 李泰鎮, 『醴泉 開心寺 石塔記의 分析-高麗前期 香徒의 一例』, 『역사학보』 53·54집, 역사학회, 1972; 李泰鎮,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0) 李泰鎮, 『士林派의 留鄉所 復立運動 -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 『진단학보』 34·35집, 진단학회, 1972·1973; 李泰鎮,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127쪽.



이를 고려의 향도가 祀神團體인 동시에 향촌공동체였듯이 이때에도 사신 향도가 촌락 공동체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 명칭은 공동체에 대한 代名詞로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경북 예천의 개심사 석탑기를 분석한 글에서<sup>11)</sup> 향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더욱 발전되었으며, 향촌구조를 해명하는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향도를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 견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견해를 밝힌 선구적인 연구는 황철산의 성과가 주목된다.<sup>12)</sup> 그에 의하면 향도는 불사의 신도들의 결사와 민간의 사회적 조직으로 대별되는데, 후자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서로 가까이 이웃하여 사는 상민, 천민들로써 조직한 일종의 계(契)로서 친목 단결을 도모하는 사교 단체적 기능을 수행, 둘째, 생사와 같은 어려운 일이 성원 중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집단적으로 도와주는 협조 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 셋째, 성원들의 옳지 못한 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기능도 수행, 넷째, 官役 부과의 대상 단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능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민간의 조직이지만 지역공동체로서 행정적인 기능을 집행하는 대상 단위였다는 것이다. 곧 물자 징수와 요역 부과의 대상 단위였으며, 조선시기 함경도 지방에서는 향도가 사실상 말단 행정 단위적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향도는 조선시기에 이르러 향약법이 실시되면서 서서히 해소되었으며, 그 과정도 우선 남도 지방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다음으로 평안도 지방에서 진행되고 함경도 지방에서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도의 잔재로 일부 지방에서는 원래의 향도의 일부 기능을 보존한 공동 노동 조직을 ‘향두’라고 하였으며 함경도 지방과 그와 인접한 일부 강원도 지방에서는 오래도록 존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원래의 향도의 내용을 보존한 곳도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와 같이 향도가 부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11) 李泰鎭, 앞의 논문, 1972; 李泰鎭, 앞의 책, 1986.

12) 황철산, 「향도(香徒, 鄉徒)에 관하여」, 『문화유산』 1961-2.

13) 황철산,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재기승》부락)의 문화와 풍습』, 과학원 출판사, 1960.

연구는 조선시기에 많은 변동을 가져온 향촌사회를 해명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함경도 지역에 향도의 기능이 잔존함을 밝힌 성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향도의 발생 시기와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신라통일기, 고려시기의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하겠다.

한편 이태진의 연구성과에서 밝혀진 논지는 채운석이 어느 정도 계승·수용하고 있다.<sup>14)</sup> 그는 신라하대에는 각 지역별로 豪富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부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시켜 갔는데,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향도 조직이 군현 또는 지역촌을 단위로 하여 결성되어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계기로 기능하였다고 한다. 이어 고려시기에도 호부층이 주도하는 본관제가 성립·강화되자, 이에 향도도 지역민을 포괄하면서 호부층 중심의 지역사회 운영을 보완하는 곧 공동체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향도에 관한 세 가지 방향의 연구성과가 있으나, 계 조직과 연결시킨 견해는 시론으로 그친 감이 있고 대체로 다음 두 방향의 성과로 대별된다. 하나는 단적으로 말해 향도는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뛰어넘어 향촌사회의 운영원리 속에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중에 특히 의문시되는 것은 향도를 그 자체를 공동체(향촌공동체)로 보는 견해이다.<sup>15)</sup> 이태진의 경우 개심사 석탑기 분석을 통해 향도의 크기 및 조직 범위를 향촌공동체를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하여 당시 향촌사회의 일반적인 실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향도 그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촌락 또는 향촌공동체 이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향촌사회를 해명한 선구적인 성과로 의미가 있어 그의 성과를 계승하는 견해가 많으나, 최근에는 그의 논지를 비판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먼저 이태진이 개심사 석탑기를 분석하면서 석탑 조성에 참여한 僧俗娘 1만 인을 당시 예천군과(추향도) 다인현(미륵향도)의 인구로 보고 이를 영

14) 蔡雄錫, 앞의 논문, 1989.

15) 김필동, 앞의 논문, 1986, 68~72쪽.

도한 향도를 거군적인 조직으로 파악한 견해를 비판한 서성희의 글은<sup>16)</sup> 주목된다. 곧 개심사 석탑의 규모와 예천 관내 사찰의 사정을 감안하여 개심사 석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미륵향도 36인, 추향도 40인, 대정방우를 비롯한 50인 등으로 보고, 향도의 존재를 지역공동체로서 거군적인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태진이 미륵향도 36인, 추향도 40인 등을 향도의 임원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향도의 구성원 전체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17)</sup>

한편 고려전기에 이루어진 불사는 향도에 의한 사례도 보이지만 향도와 관련 없는 사례를 통해, 향도는 불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자율적 신앙단체이며 지역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이끌어낸 구산우의 성과는<sup>18)</sup> 주목된다. 그는 특히 고려 전기에 이루어진 각종 불사에 대해 폭넓게 정리하면서 불사의 주체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 결과 향도에 의한 불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주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음미하면 향도가 군현 또는 촌락 단위로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하부조직으로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곧 향도가 향촌공동체의 성격과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비록 향도가 향촌에서 조직되었고 향리를 비롯한 향촌의 주도세력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신앙조직의 성격을 띠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지역의 사원과 연계되어 있는 隨院僧徒가 불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수원승도를 향촌공동체로 이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도를 향촌공동체의 행정 단위 조직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한편 고려 후기에서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유행한 매향 사례에서도 향도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긴 했으나, 새로운

16) 서성희, 『高麗 初 예천 지역세력과開心寺 석탑 건립』, 『부대사학』 25·26합,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2; 이러한 견해는 이미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300쪽에서 향도를 지역촌 정도의 규모로 보고, 거군적으로 파악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17) 김필동, 앞의 논문, 84~85쪽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18) 具山祐, 앞의 책, 2003.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는 이해준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9)</sup> 그는 매향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모든 사례에서 향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법 많은 향도의 존재를 접하고서 그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는 향도를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여 신앙공동체라기보다 향촌공동체의 일원으로 파악하였는데, 앞서 살핀 이태진의 논지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향 활동은 여말선초의 향촌사회의 변화와 연관된다는 논지를 전개한 논문을 채웅석이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0)</sup> 곧 그는 향도를 향촌공동체의 실체라는 관점 아래 “불교신앙에 바탕한 향도가 고려전기부터 각지에서 조직되어 활동할 때, 향리층이 그것을 주도하면서 군현 내지 지역촌 규모의 향촌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고려후기부터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확보해가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향촌공동체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자연촌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활동보다도 오히려 會飲儀式과 장례시의 부조, 농경의례 주관 등 공동체활동이 부각되는 향도가 출현하는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를 살필 때 향도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매향이다.”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비판이 있긴 하지만 역사학 방면에서는 여전히 향도를 향촌공동체의 기능과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향도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글은 없는 편이다. 다만 향도에 관한 새로운 자료 발굴에 따른 성과가 있을 뿐이다. 최근 주목되는 사례는 2004년 6월에 경남 사천시 선진리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新羅卍雲大王銘碑’라는 비문에 명기된 향도에 대한 기록이다.<sup>21)</sup> 발굴 책임을 맡은 정의도가 이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시도하였고, 이 자료를 부분적으로 이용한 글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sup>22)</sup> 후자의 글에서도 향도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19) 李海濬, 앞의 책, 1996.

20) 蔡雄錫,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21) 鄭義道, 「新羅卍雲大王銘碑 研究」, 『한국중세사연구』 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22)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金昌錫, 「靑州의 祿邑과 香徒」,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3. 향도의 몇 가지 사례 검토

앞서 향도에 관한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sup>23)</sup> 몇 가지 향도의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곧 삼국시기 향도의 초기 기록을 비롯하여 이후 신라통일기, 고려시기 등 각 시기별로 주목되는 사례와 최근에 발굴된 신자료 등을 중심으로 향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향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三國史記』 권41, 金庾信傳에 “공이 15세에 花郎이 되자 時人이 洽然히 服從하였는데, (이를) 龍華香徒라 이름하였다”는 기사이다. 이는 진평왕 31년(609년)의 기록으로 김유신이 화랑이 되자 그를 따르는 郎徒를 ‘龍華香徒’라고 했다는 것이다. 용화향도의 명칭으로 보아 바로 김유신이 이끄는 낭도집단은 그 신앙적 기반이 불교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龍華香徒’의 ‘龍華’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彌勒<sup>4)</sup>인 것으로 보아 이들은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향도는 김유신의 낭도를 미륵향도라고 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의 신앙조직 곧 신앙공동체로서 출발하였다. 향도는 불교 수용 이전부터 존재하던 원시공동체적인 유제와 불교 수용 이후 신앙공동체적인 요소가 서로 결합한 형태였으나, 불교대중화를 기초로 한 중세불교 성립 후에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시기 화랑제도를 중심으로 한 불교신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국가로 성립한 삼국이 발전하는 가운데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신라는 5세기 초반에 전래된 불교를 6세기 초에 가서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하였다. 신라에서 불교 수용은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지마립간대에 왕궁의 내전에 둔 梵修僧과 5세기대의 고분으로 알려진 적석목곽분에 보이는 불교적인 요소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사조로 전래된 불교에 대해 귀족층은 초기에는 왕실에

23) 향도를 전론으로 다룬 채용석, 앞의 논문, 1989에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다.

24) 『彌勒上生經』, “若有敬禮彌勒佛者 除劫百億劫生死之罪 乃至來也 龍華樹下 亦得見佛.”

비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불교 공인 과정에서 왕실과 귀족간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巫醫의 기능을 승려가 담당한다든가, 巫敎(蘇塗) 신앙의 제의가 행해지던 곳에 신성한 수목이 잘리면서 興輪寺가 건립된 것은 귀족들이 주관하던 부족적 신앙이 불교로 대체된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 당시 불교는 다분히 주술적·토착적인 면모를 흡수하고 있었다.

이로써 귀족들은 그들이 종래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마저 포기한 셈인데, 이는 불교가 토착적인 신앙을 포용할 수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귀족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신앙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곧 전륜성왕 설화와 석가의 권위를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실의 ‘王卽佛’ 신앙에 대해 공덕사상 또는 인과응보설에 근거를 둔 윤회전생설이 자신들의 특권을 옹호해 주는 이론적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가 수용·공인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유구조도 서서히 전환되어 갔다. 고유신앙(소도신앙)이 불교에 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는 초기불교의 내용과 관련된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죽어서도 현재의 지위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어 순장과 후장, 부부합장을 행하도록 한 繼世的 세계관이 불교의 業說과 輪廻說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점이다.<sup>25)</sup> 아울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상·신앙적인 흐름이 불교로 서서히 대체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화랑제이다.

화랑제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있으나, 화랑제는 불교수용 이전부터 존재한 공동체를 불교 수용 이후에 불교라는 틀 속에 재편된 것이다.<sup>26)</sup> 화랑은 귀족 자제로서 충당하되, 귀족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적인 기반인 일정 영역이나 아니면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통괄하는 공동체로

25) 邊太燮, 『韓國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上·下, 『역사교육』 3·4, 한국역사교육학회, 1958·1959.

26) 井上秀雄, 『古代東アジア의 文化交流』, 溪水社, 1993, 128~129쪽에서는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그 영향하에 원래 촌락공동체의 一組織이며 종래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原‘花郎’제도를 확충된 국가기구의 기구·조직에 정비한 것을 花郎制로 보고 있다.

서 인정해 주는 성격을 띤 것이 화랑제가 아닌가 한다. 단적으로 말해 식읍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행해진 徙民政策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지증왕 15년에 阿尸村에다 小京을 설치하고 六部 및 南地人 戶로 충당케 했으며, 진흥왕 19년에 貴戚 자제와 六部 豪民을 옮겨 國原小京을 충당했다는 기록처럼<sup>27)</sup> 새로운 복속지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귀족이나 육부민을 옮겨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복속지에 본래 존재하던 공동체를 새로이 개편하면서 조직한 것이 화랑제일 가능성이 크다.<sup>28)</sup>

이러한 화랑제는 귀족 출신인 화랑과 화랑이 관할하는 지역민들인 郎徒(香徒)를 골격으로 하면서 이를 유지하는 사상적인 기반을 불교의 미륵신앙에서 찾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용화향도’에 관한 자료이다. 미륵신앙은 바로 불교 수용·공인 이전에 독자성이 강한 성격을 띤 소도신앙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후대에 불교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정착된 향도를 이끌어가는 사상적인 기반은 주로 미륵신앙이었음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어떻든 화랑제는 왕실과 귀족간의 타협 속에 이루어진 산물로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귀족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적 기반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국가적인 체제 속에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귀족으로서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왕실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그들의 본래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매개해 준 것이 미륵신앙이었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화랑제는 낭도(향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를 매개해 준 것이 미륵신앙이었다. 이러한 향도가 신라통일기에는 어떠한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자. 불교가 신라에 수용된 이후 사회발전의 방향에 발맞추어 중세불교로 서서히 정착해 갔다. 중세불교는 불교종파의 성립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종파성립은 특정 사상이 교학면(哲

27) 『三國史記』 권4, 智證麻立干 15년조 및 眞興王 19년조.

28) 金炳坤, 『新羅 中古期の 花郎徒』, 『동국사학』 30, 1996, 93~96쪽.

學面, 體)·의식면(儀禮面, 相)·신앙면(實踐面, 用)에서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 곧 특정 계층의 지원에 의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사원(집회처)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사상이라고 할 때 세계성·보편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며, 종파성립의 산물로 조직된 승정체제(교단)의 확립을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교학면·의식면·신앙면 등을 기반으로 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가는 주체가 특정 계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곧 종파성립은 특정 계층만의 독점(전유)의 산물이 아니라 전 사회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단계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불교대중화로 구체화된다. 곧 사회계층과 지역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지배층이 그들의 권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民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곧 신앙을 매개로 하여 민들의 사회적·신앙적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상호간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불교계의 전반적인 현황 즉 교학체계의 양상, 신앙과 의식의 성격, 주도 승려층의 정치·사회적 성향 등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학불교의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와 불교대중화 문제는 불교가 전래·수용된 이래의 전반적인 발전양상과 유기적으로 관련된 현상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종파성립의 단초를 연 시기는 교학·의식체계를 단순히 수용하는 단계에서 독창적으로 이해하고 평가·재해석하는 단계로의 전환, 신앙을 왕실·귀족들만이 전유하는 단계에서 일반 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의 전환, 또한 王都 중심에서 지방사회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인 7세기 말~8세기 초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신라 중대에는 華嚴宗·法相宗·禪印宗 등의 종파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종파불교는 신앙을 통해 지배층과 민들을 매개함으로써 발전하였다. 신앙형태는 미타신앙과 미륵신앙으로 淨土信仰의 성격을 띠는데, 신앙공동체의 조직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불사를 위해 조직된 사례 중의 하나로 향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시기 향도에 관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신라통일기 초에 옛 백제



지역인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행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발견된 선진리성 유적에서 발견된 향도 사례이다.

먼저 신라통일기 초에 옛 백제 지역인 연기군에서 아미타불을 비롯한 여러 불보살을 조상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에 조성된 아미타불상과 이에 관한 명문이 남아 있어<sup>29)</sup> 생생한 자료가 된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유명아미타불삼존석상은 1960년 9월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사방골의 碑巖寺에서 기축명아미타불상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현재 국보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전면 52자, 양측면 102자, 후면 12자, 도합 166자 가량이 확인되고 있다. 판독 가능한 글자에 따르면, 673년(문무왕 13) 4월 15일에 50인의 신도가 국왕, 대신 및 7세 부모와 모든 영혼을 위하여 사원을 짓고, 석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글 가운데에 백제유민으로 추정되는 舍氏 및 백제관등인 達率 등의 표현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보이는 국왕과 대신이 신라인지 백제를 지칭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든 백제 지역에서도 미타신앙이 유행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무너져 버린 백제가 아미타불의 힘을 빌어 극락정토에서나마 새롭게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불상들을 조상하였던 것은 아닌가 한다.

둘째, 戊寅銘蓮花寺四面石像은 현재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월하리 연화사 법당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사면의 佛碑像으로 현재 보물 제6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면에 모두 조각을 새기고 있는데 명문으로 짐작컨대 정면으로 생각되는 부분에는 아미타오존상이, 배면에는 공양보살을 협시로 한 미륵반가사유상 삼존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은 문무왕 18년(678)에 조상한 것으로 앞서 본 제작양식과 기법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유민이 조상한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에서 계유명아미타삼존사면석상과 함께 수습·조사된 것으로 현재

29) 黃壽永 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246~251쪽.

보물 제367호로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각은 정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광배형 화면 중앙에 九尊, 7化佛, 蓮池, 欄干 등의 도상을 가득 새기고 있다. 뒷면 상부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신문왕 9년(689)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 불상 또한 앞의 戊寅銘蓮花寺四面石像과 마찬가지로 제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불상의 제작양식과 기법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유민이 조상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위의 사례와 더불어 계유명아미타불삼존석상 주위에서 발견된 계유명삼존천불비상은 주목된다. 이는 아미타불삼존석상과 같은 해에 조성된 것으로 석가불을 주존불로 삼고 있지만 양자는 조상의 주체와 발원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계유명삼존천불비상의 명문 중에 250명이 香徒를 결성했다는 내용이 보인다.<sup>30)</sup>

이상에서 살핀 사례는 옛 백제 지역의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적어도 백제에는 이미 미타정토신앙이 일찍부터 전래·유행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아울러 비록 백제의 관등인 ‘달솔’을 사용하고 있는 인물이 보이긴 하지만 지역 토호층과 지역민들이 주체가 된 造像이라는 형태의 신앙행위라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불교대중화가 확산되어 가는 사례라 하겠다.

다만 계유명삼존천불비상에 보이는 ‘향도’의 사례를 250명이라는 숫자로 보아 이 지역의 지역촌 규모의 공동체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sup>31)</sup>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중국은 향도가 지역촌 규모의 공동체라고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도는 祈佛이라고 하는 종교적 기능 외에 경작과 관련된 役事に 공동체로서 공동의 노동을 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이를 두레의 전통과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계유명아미타불삼존석상에 향도의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향도조직이 발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더 나아가 백제 때 조성된 서산과 태안의 마애삼존불까지도 향도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심지어 그는 향도가 공동노동의 기

30) 이에 대해서는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297~301쪽 참조.

31) 위의 책, 299~301쪽.

능을 가졌다고 보고 대구 지역에 수리시설로서 만든 塙의 조성에도(무술오작비, 진지왕 3년, 578년) 향도조직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2)</sup>

앞의 두 불상의 조성은 모두 동일 시점(673년)에 이루어졌으며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도의 기록은 비록 삼존천불비상에만 보이지만 두 불상은 모두 동일 향도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분화된 서로 다른 향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그러나 향도의 기능을 祈佛과 관련된 공동노동이라는 측면에서 향도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사례까지도 향도조직이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향도를 향촌(지역)공동체로 파악한 나머지 각 지역에서 공동으로 행해진 신앙행위와 노동 등은 향도의 존재를 말해 주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 향도는 도성과 각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며, 비록 지역을 기초로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신앙과 연관된 신앙공동체일 뿐이다.

2)-1 신라통일기의 중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향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삼국유사』 권5, 感通 7, 『郁面婢念佛西昇』조에 의하면 경덕왕대에 康州 곧 지금의 진주 지역에서 善士 수십 명이 미타사에서 만일염불계를 결성한 사례가 보인다. 기록상 향도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지만 신앙조직으로서 향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성에서 지역으로 불교신앙이 확산한 양상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강주와 인접한 사천 지역에 향도라는 신앙공동체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선진리성에서 비가 발견되었는데, 그

32) 김필동, 앞의 논문, 1986, 93쪽에서 노중국이 향도와 두레를 연결시켜 향도를 노동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33) 김주성, 「연기 불상군 명문을 통해 본 연기지방 백제유민의 동향」, 『선사와 고대』 15, 한국고대학회, 2000, 72~73쪽;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 信仰結社」,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127쪽.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sup>34)</sup>

(앞면)

1열: 更得乃末□□□

2열: 國主而雲大王上大等□

3열: 神述時州總官蘇干

(뒷면)

1열: 香徒上了言大德縣令

2열: 乃末體眞上村主岐

3열: □□□□

위의 자료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남기고 있으나 향도와 관련된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위의 자료에 보이는 國主而雲大王은 혜공왕으로 비정하고 있다.<sup>35)</sup> 上大等 □, 州總官蘇干 神述, 乃末 □□□, 香徒上了言大德, 縣令, 乃末 體眞, 上村主 岐 등의 인물과 그들의 관등과 직명을 접할 수 있다. 이 자료에 관한 발굴책임자인 정의도의 논문이 있어 좋은 참고가 되었다. 다만 향도와 관련지워 이 자료를 이해한다면, 강주 관내의 불사에 국왕을 비롯한 상대등, 당시 강주 총관이었던 신술<sup>36)</sup> 등의 중앙의 귀족들과 실무를 담당했던 향도가 함께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도는 上首로서 요언 대덕과 현령, 내말 체진, 상촌주 파 등으로 조직되었다고 하겠다. 불완전한 자료로서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향도는 적어도 향촌공동체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곧 지방행정 중심지의 주도세력들이 향도라는 신앙공동체를 조직하고 중앙의 지배층과 연결되어 불사를 행한 사례로 보인다.<sup>37)</sup>

34) 鄭義道, 앞의 논문, 150~157쪽.

35) 위의 논문.

36) 『三國史記』 권10, 원성왕 원년에 “왕비 김씨는 각간 神述의 딸이다.”라고 한 신술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

37) 尹善泰, 앞의 논문, 2005, 128쪽에서는 대덕을 중앙불교계 출신의 승려로 보고 향도조직에 중앙권력이 그 조직구성에 일정하게 관여하였다고 한다. 논지는 동감하나, 대덕은

3) 종파불교가 성립된 이후 지방사회에까지 불교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지방사회의 토호세력과 그 이하의 신분층들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결성한 일종의 신앙공동체 곧 신앙결사가 유행하게 되었다. 주로 지방의 소규모 사원을 주 근거지로 하여 결성된 香徒組織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로서의 향도는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초기부터 독자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 향도가 지향하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신앙활동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과정에서 지배층과 향촌사회의 토호층 및 일반 민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향도는 초기에는 화랑을 매개로 하여 경주의 왕실·귀족과의 연결구조 속에서 존재하였지만 신라통일기에 지방사회에서 조성된 石塔이나 佛像, 심지어 寫經 활동 등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신라시대 이전의 경우는 중앙의 왕실·귀족의 지원에 따른 연결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경향을 띤 귀족들에 의해 불교종파가 장악되자 이들 양자간에는 사회적·신앙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귀족들은 ‘結契’, ‘結社’ 등의 형태로 그들의 보수적이면서 사치한 신앙활동을 유지하였다. 차츰 중앙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향촌사회의 토호층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던 민중들은 ‘香徒’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향도조직이 독자성을 띤 현상이 보편화되는 단계는 신라말부터이며, 고려시기까지 연결된다.

이 시기 사정을 알려주는 사례로서는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조상기의 내용이 주목된다. 곧 경문왕 5년(865)에 한주 북쪽 철원군 도피안사에서 철불을 조성한 내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불상 조성에 거사 1,500여 명이 향도를 결연하였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신라의 변방에서 그 지역의 토호층과 민들이 참여하여 신앙조직으로 향도를 결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교신앙이 중앙 불교교단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확산된 양상을 읽을 수 있다.

---

고승이라는 의미의 범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고려가 성립된 이후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불교세력으로 주된 개편대상은 지방호족과 결합하고 있었던 禪門勢力이었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시도하면서 이러한 불교계에 대한 정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선종의 분권적 경향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교종에 대해서도 화엄종의 均如를 발탁하여 후삼국 이래의 南岳派와 北岳派로 분열된 화엄종단을 통합하게 하였다. 또한 균여는 실천신앙을 통해 왕실과 기층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까지도<sup>38)</sup> 수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종대의 반동정치에 의한 탄압과 성종이 崔承老를 등용한 이후는 유학이 집권적 귀족사회의 이념으로 채택됨으로써 불교가 가졌던 체제이념으로서의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각 종파별·신앙별로 특정집단만을 대변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귀족불교로서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과는 달리 향촌사회의 향리층이나 대다수의 농민·천민층은 특정종파와는 괴리된 채 독자적인 신앙공동체 곧 향도를 형성하기도 하고 소규모 사원을 중심으로 한 造塔·鑄鐘에 참여하여 淨土信仰과 傳統信仰을 수호하고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주는 향도에 대해서는 몇 사례가 보인다.

먼저 성종 16년(997) 경기도 죽주에 소재한 長命寺의 오층석탑을 만들기 위하여 결성한 향도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sup>39)</sup> 안성시 죽산면 서부동에 소재한 장명사지에 있던 오층석탑은 현재 인근의 칠장사에 삼층석탑으로 복원, 이전되었다. 당시 사리장엄구와 함께 수습한 납석제 탑지석에는 석탑 건립에 대한 발원문과 건립을 주도한 향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sup>40)</sup> 발원

38) 許興植, 『高麗前期 佛敎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 『한국학보』 11, 일지사, 1978, 93~94쪽.

39) 蔡雄錫, 앞의 논문, 1989, 98~99쪽; 崔聖銀, 『竹州 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조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 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판독 자료는 黃壽永, 『黃壽永全集 3-한국의 불교공예·탑파』, 혜안, 1998, 223쪽; 경기도 편, 『畿內寺院誌』, 1988, 714쪽에 수록되어 있으나, 판독한 몇 글자가 서로 차이가 보인다. 심지어 연호의 경우, 황수영은 ‘淳和’로 판독하고 있다.

40) 黃壽永, 위의 책, 223쪽.

문은 성종 16년인 통화 15년(997) 4월 27일 장명사에 오층석탑을 세우며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탑 조성을 주도한 향도의 구성원은 戶長 安帝京, 金正, 崔廉을<sup>41)</sup> 비롯한 기술을 담당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장명사지 석탑 건립의 주체는 향도이며, 향도를 주도한 세력은 이 지역의 호장과 창정 같은 지방향리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인 성종 12년(993)에 인접한 곳에서 중수된 미륵당오층석탑을 통해 당시 지역 내에서 경쟁적인 토호세력들은 불사를 통하여 서로 세력을 과시했다는 견해는<sup>42)</sup> 수긍된다. 그러나 죽주의 읍사조직이 향도를 주도했고 그 조직범위는 군현규모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는<sup>43)</sup> 이해하기 어렵다. 戶長 安帝京 한 명을 두고 읍사조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까. ‘金正’을 ‘倉正’으로 잘못 인용하여 호장과 창정 두 명을 갖고 읍사조직으로 해석한 것도 무리이다. 죽주의 토호세력 일부가 향도에 참여했을 뿐 확대 해석은 무리이다. 향도를 통해 죽주 관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향도와는 관련 없는 또 다른 토호세력이 그렇게 쉽게 미륵당오층석탑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향도는 요즘 각 사찰의 신도조직에 유력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권위와 세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당시 그 지역의 토호층들이 참여한 신앙공동체의 하나일 뿐이다.

4)-1 현종 원년(1010)에 경북 예천 개심사 석탑을 조성하면서 이를 주도한 彌肋香徒(42)와 椎香徒(95)의 예이다. 이들 중 ‘椎香徒’는 미타향도로 생각되는데, 이로 보아 이 지역의 신앙공동체는 미륵신앙과 미타신앙을 각각 신봉하였을 것이다.<sup>44)</sup> 개심사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기에 더 이상 언급은 줄인다.

41) 蔡雄錫, 앞의 논문, 1989, 127쪽에는 『畿內寺院誌』를 인용하여 ‘金正’을 ‘倉正’으로 명기했으나, 실제 『畿內寺院誌』, 경기도, 1988, 714쪽에는 ‘金正’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42) 위의 논문, 99쪽.

43) 위의 논문, 99쪽.

44) 李泰鎮, 앞의 논문, 1972.

이러한 사례 외에 신라통일기 후반부터 고려시기에 이르기까지 향촌사회의 불교신앙에서 향도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향도와는 관련없이 상층 지배계층이 아닌 지방사회의 중간신분층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소규모의 불사는 무수히 많다.<sup>45)</sup> 가령 巨濟 北寺에서 鐘을 주조한 사례에서<sup>46)</sup> 보는 바와 같이 향도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으나, 이 지역 부곡에서 토호층과 민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에서 이러한 주종을 주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상층 지배층과 향촌사회의 간극이 엄연히 존재하는 추세 속에 고려중기의 보수적인 불교계는 무신란 이후의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된 신앙결사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은 개경 중심의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운동이라는 점에서 공동의 과제를 갖고 출발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들에게서 지방불교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들의 성격을 불교개혁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신앙결사가 성공하여 당시 불교계의 제반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사회의 향리층을 중심으로 민들까지 아우르는 신앙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몽항전기를 거치고 무신정권이 붕괴되면서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불교계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의 결과 원간섭이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 타협하고 온존하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신앙결사를 계승하면서 당시의 보수적인 성격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엇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불교계의 추세는 보수적 경향과 타력신앙적인 요소로 가득하였다. 결국 고려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많은

45) 具山祐, 앞의 책, 521~552쪽.

46) 『朝鮮金石總覽』(上), 『北寺鐘記』, 262~263쪽.

47) 蔡尙植, 「13세기 信仰結社의 성립과 사상적 경향」,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에까지 손을 대는 등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불교계로서는 사회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고려말에 불교가 국가적·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이르면 지방불교와 민중들의 신앙은 독자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향도조직이 온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신앙활동으로 기록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埋香信仰이었다. 고려말에서 조선초까지 일부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적 요소와 미륵·미타신앙이 결합한 성격을 지닌 매향신앙이 유행함으로써 여전히 신앙공동체로서 향도의 기능이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불교적인 요소를 탈각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향도는 불교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祀神團體的’인 기능이나, 향촌사회의 상부상조하는 ‘契’의 성격을 갖는 존재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 시기 향도에 관한 기록 중 주목되는 것은 불사가 중심을 이루었던 이전에 비해 변질된 양상을 띤 사례와 해안을 중심으로 행해진 많은 매향의 사례이다. 전자는 인종 9년(1131)에 陰陽會議所에서 奏하기를 “근래에 승속 잡류들이 무리를 지어 萬佛香徒라고 부르면서 혹은 엄불과 독경을 하며 허황된 짓을 하고, 혹은 內外寺社의 승도들이 술과 파를 팔거나, 혹은 兵仗을 들고 포악한 짓을 하고 날뛰면서 유희를 하여, 倫常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어사대와 금오위로 하여금 점검하여 금지시킬 것을 청합니다.”라고<sup>48)</sup>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위의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웅석은 “본관제 질서가 해체되어 가고, 지역사회에서 그때까지 권능, 교화 등 공공기능을 담당하면서 공동체적 결속을 주도하던 호부층들의 역할이 방기,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층민들이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모색하는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호부층들이 주도하던 종래의 향도는 비중과 역할이 감소되고 변화되어 나갔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sup>49)</sup>라고 하고 있다.

48) 『高麗史』 권85, 형법 2, 禁劄, 인종 9년 6월조.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수긍할 수 있지만, 만불향도의 사례를 통하여 음미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향도가 이전에는 불사를 위한 신앙조직이었다면, 이 자료에는 불교를 표방하지만 도시의 빈한한 계층이 상행위와 유희를 통해 자구책을 구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전의 향도가 발생 초기에는 귀족, 차츰 토호층이 주도하던 신앙공동체의 양상을 띠었지만, 이 시기에는 도시의 최하층이 향도를 주도할 정도로 불교가 여러 계층 속에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시기에 들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매향하는 신앙형태가 전라도를 비롯한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많이 행해졌다. 이러한 사례에는 향도가 주도한 것이 많이 보이나, 향도조직은 보이지 않지만 매향한 사례도 있다.<sup>50)</sup> 이들 매향 사례는 高城三日浦埋香碑에 “以待龍華會主 彌勒下生之地 同生會下 供養三寶者”라든가 “泗川埋香碑에 以待慈氏下生 龍華三乃 持此香達奉獻 供養彌勒如來”라고 한 기록을 음미하면 미륵신앙과 결합된 신앙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타신앙을 표방한 사례도 적지 않다.<sup>51)</sup>

그런데 이들 사례가 주로 전라도를 비롯한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속성이 전통신앙과 불교적 신앙기반을 고수하려는 특성과 관련된 측면도 있을 것이며, 이보다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왜구의 침략에 대한 불안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한다.<sup>52)</sup>

#### 4. 향도의 성격

향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향도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향도 관련 자료에 대

49) 蔡雄錫, 앞의 논문, 1989, 112~115쪽에 향도가 변질되어 가는 사정을 잘 정리하고 있다.

50) 李海濬, 앞의 책, 1996; 蔡雄錫,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51) 李海濬, 위의 책, 148~156쪽.

52) 李海濬, 위의 책, 130~133쪽.

한 접근태도를 들 수 있다. 향도를 신앙공동체로 보는 경우에 ‘향도’라는 용어가 기록상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을 매개로 한 결사·결도 등의 조직체를 크게 향도의 범주에 넣어 해석하기도 한다. 향도를 지역(향촌)공동체로 보는 경우에도 신앙행위와 관련된 조직이 보이면 향도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그러나 앞의 어떤 사례라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향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는 향도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신앙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내부를 보면 신앙 내용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향도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향도의 성격을 설명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도’라는 기록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예천 개심사 석탑기에는(현종 원년, 1010) 향도가 기록되어 있기에 분명 향도가 석탑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若木郡 淨兜寺五層石塔 造成形止記에는(현종 22, 1031) 향도가 보이지 않고 ‘隨願僧俗’이 보인다.<sup>53)</sup> 약목군에는 다른 형태의 신앙공동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향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행지기는 석탑기에 비해 석탑의 조성 내력과 사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조성의 주체 또는 실무를 담당했던 향도가 존재했다면 명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곧 향도는 향촌공동체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향도를 전론으로 다룬 채웅석은 본인이 밝혔듯이 향도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향촌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변동을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접근하다보니, 향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향도=향촌공동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여 향촌에는 모두 향도가 존재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는 고려전기의 사례를 들면서 “향도는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재지 지배세력들이 (향도의) 정토신앙을 적극 이용하여 자기 기반 확보에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향도는 지역촌 또는 군현을 단위로 하여 지역내 호부층으로 구성되어 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적 유

53) 李基白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87, 46~52쪽.

대관계 강화의 현실적 계기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 호부층들이 주도하는 본관의 정치적 공동체가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향도조직은 이 조건에 일정하게 제약받고 역으로 그것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이는 향도뿐만 아니라 금석문상에 나타나는 단체적 신앙활동의 다른 유형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54)</sup> 라고 하여 향도를 향촌사회의 역학관계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향도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활동의 형태를 띤 조직은 기능상 향도와 같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향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향도가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가졌다는 선입견에 따라 나온 것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향도가 어떤 성격을 갖는 조직체 또는 공동체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발생시기에는 향도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香’과 관련이 있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촌락이나 공동체가 아니며, ‘향’을 사용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곧 향도는 ‘향’을 매개로 한 신앙공동체로 보인다. 이에 관한 자료로서 『삼국유사』에 보이는 다음의 자료는 주목된다.

太平興國 7년 임오에 승려 成梵이 처음으로 이 절에 와서 살면서 萬日彌陀道場을 열어 50여 년을 부지런히 수행하였는데, 누차 특이한 상서가 있었다. 이때 玄風의 信士 20여 명이 해마다 결사하여 香木을 주워 절에 바쳐왔다. 매번 산에 들어가 향목을 채취하여 쪼개어 씻어서 발위에 넣어 놓았다. 그 향목이 밤이 되면 촛불처럼 빛을 발하였다. 이로 인해 郡人들이 그 香徒에게 크게 보시하고 빛을 얻은 해라 하여 하례하였다. 곧 두 성사의 신령이 감응한 바이거나 岳神의 도움이라 하겠다. 산악신의 이름은 靜聖天王이다.<sup>55)</sup>

위의 자료에서 향도라고 불린 신앙조직에서 향목을 채취한 것은 일종의 신앙형태로 보인다. 위의 자료는 고려 성종 원년(982)에 경북 현풍의 비슬산에서 행해진 향도의 사례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타신앙을 신봉하

54) 蔡雄錫, 앞의 논문, 1989, 124쪽.

55) 『三國遺事』 권5, 피은 8, 『包山二聖』.

고 수행하였지만 전통신앙인 산악신앙과도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일부 향도의 자료 중에 그 구성원으로 보이는 ‘仙郎의 존재와<sup>56)</sup> 연결된다. 이는 전통신앙과 불교의 정토신앙이 서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으며, 향도의 성격이 신앙공동체이면서 불교신앙을 전면에서 내세우기는 하지만 전통신앙과 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향도조직에서 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고려말에 유행한 매향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고려말 우왕 때의 “향도는 결계하여 燒香하는 집단을 의미”한다는 기록으로<sup>57)</sup> 보면 향도는 향의 사용과 관련됨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헌덕왕 9년(817) 경주 흥륜사에서 永秀禪師와 鄉老들이 주체가 되어 향도를 결성하고 이차돈의 무덤을 참배한 기록에서도<sup>58)</sup> ‘營壇作梵’의 구절이 보이는데, 아마 단을 세우고 불교의 예법을 시행했다면 향목의 사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기록에는 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향’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앙공동체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 우리 역사상 향은 언제부터 사용하였으며, 그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삼국시기부터 사용된 것은 분명하며,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함께 전래되었다. 인도와 중국에서 고래로 牛脂로 만든 膏香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향이 존재했으나,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을 치루거나 개인이 正坐하여 수행할 때 기운을 바르게 하기 위해 芸香과 檀香 등을 燒香하였다.<sup>59)</sup>

이러한 향은 신라 눌지왕 때 당시 중국 梁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면서 불경·불상과 함께 冥檀香(침향)을 전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향의 용도를 몰라 하기에 목호자가 “이를 사르면 향기가 매우 강하여 神聖에게 정성을 통하게 하는데 쓰인다”고 하였으며, 당시 왕녀가 몹시 위독한 것을

56) 蔡雄錫, 앞의 논문, 125~131쪽, 향도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仙郎, 娘’ 등의 사례가 여러 건 보인다.

57) 『高麗史』 권122, 沈于慶傳.

58) 『三國遺事』 권3, 흥법 3, 『原宗興法 厭觸滅身』.

59) 『中文大辭典』(十),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 256쪽; 『佛學大辭典』, 上海書店, 1991, 1610쪽.

목호자가 향을 사르며 서원을 표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sup>60)</sup> 또 주목되는 자료는 신라 소지왕대에 궁궐에서 궁주와 간통하다가 발각된 ‘焚修僧’의 존재에서<sup>61)</sup> 불교의식에 焚香하는 양상, 곧 향을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김유신이 18세인 진평왕 34년(612)에 열박산에서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한 사례는 주목된다. 여기서 김유신이 향을 사용한 기록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이 기록 바로 앞에도 김유신이 향을 사용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보인다. 곧 김유신이 15세에 화랑이 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용화향도라고 불렀다는 기록과 이어 17세에는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 침략한 적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중앙 석굴에 들어가 齋戒하고 하늘에 고했다는 것이다.<sup>62)</sup> 그가 석굴에서 재계하고 기도할 때 향의 사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향도는 향을 매개로 한 신앙조직이다. 향은 초기에는 왕실과 귀족에게 독점되어 불교의식과 治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산천에 제사를 모시는 의식 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김유신이 용화향도를 운영하면서 의식을 행할 때와 그가 산천을 기도할 때 사용하였던 향은 독점적인 산물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향도를 조직한 구성원들의 신분과 계층은 상층 지배층에서 중간 신분층과 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김유신의 용화향도 단계에서 신라통일기를 이어 고려중기까지는 향도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상층 신분층과 토호층이었으며, 여기에 물론 다수의 민들이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중기 이후 향의 사용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화되면서<sup>63)</sup> 향도는 상당히 분화가 이루어져 민들도 독자적으로 향도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진다.<sup>64)</sup> 이에 따라 고려

60) 『三國遺事』 권3, 흥법 3, 「阿道基羅」; 『三國史記』 권4, 법흥왕 15년.

61) 『三國遺事』 권1, 기이 2, 「射琴匣」.

62) 『三國史記』 권41, 「金庚信傳(上)」.

63) 李海濬, 앞의 책, 128~129쪽에 고려중기 이래 중국 사신들이 ‘沈香’을 바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공민왕대에는 향의 사용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말에는 매향이 해안지역에 한정되긴 했지만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향도는 일차적으로 향을 매개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존재하였지만, 일부 상당히 큰 규모의 경우는 향도를 주도한 세력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지역을 통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향도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역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어떻든 향도는 불교의 신앙결사의 한 형태이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된 특징이 있다. 향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행을 통해 解脱·涅槃에 이르는 것이었다. 아울러 향도는 造石·造像·造塔·造鐘 등 불교의 상징 조형물의 조성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공동 마련이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念佛 수행의 계획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도는 고려후기를 지나 여말선초에 이르면 불교가 퇴조함에 따라 향도의 성격이 변질된다. 이러한 중에 일부 도서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적 요소와 미륵신앙이 결합한 埋香 신앙이 유행하였다. 곧 신앙공동체로서 향도의 기능이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탈각해가면서 본래부터 포용하고 있던 민간신앙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곧 향도는 불교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祀神團體的’인 기능이나, 향촌사회의 상부상조하는 ‘契’의 성격을 갖는 존재로 변신하게 되었다.

64) 『高麗史』 권122, 沈于慶傳, “國俗結契燒香 名曰香徒 相與輪設宴會 男女少長 序坐共飲 謂之香徒宴”라는 기록은 우왕 때 경주부의 판관으로 있던 심우경이 혹형을 가한 사건을 서술하면서 향도에 대해 설명을 붙인 것이다. 여기에서 향도는 결계하여 소향하는 집단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또 남녀노소가 서로 돌아가면서 연회를 베풀고 서차를 지켜 함께 마시면서 모임을 조직한 것을 향도연이라고 했다는 서술에서 서민들도 향도를 결성할 정도로 상당히 보편화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 5. 맺음말

향도는 김유신의 낭도를 미륵향도라고 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의 신앙조직 곧 신앙공동체로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향도를 역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향촌(지연)공동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곧 자발적인 공동체인긴 하지만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향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양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생각한다.

향도는 향을 매개로 한 신앙조직이다. 향은 초기에는 왕실과 귀족에게 독점되어 불교의식과 治病, 산천에 제사를 모실 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김유신의 용화향도라는 용례에서도 독점적으로 향이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향도를 조직한 구성원들의 신분과 계층은 상층 지배층에서 중간 신분층과 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향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미루어 보면 초기의 향도는 귀족들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신앙공동체로서의 향도는 불교가 대중화라는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불교대중화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전 계층의 공유화, 또 지역적으로 왕도에서 지방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향도가 지향하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신앙활동이었기 때문에 중세불교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향도는 지배층과 향촌사회의 토호층과 민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차츰 보수적인 경향을 띤 귀족들에 의해 불교종파가 장악되자 이들 양자간에는 사회적·신앙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귀족들은 ‘結契’, ‘結社’ 등의 형태로 그들의 보수적이면서 사치한 신앙활동을 유지하였으나, ‘香徒’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주도하는 계층은 향촌사회의 향리와 촌주를 필두로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던 일반 민들이었다. 이들의 신앙형태는 미타·미륵신앙을 축으로 하는 정토신앙으로서 신라중대에는 미타·관음신앙이 우세하였으나, 차츰 신라하대의 정치·사회적 변혁기에는 미륵신앙 그것도 미륵해생 신앙이 크게 유행



하였다. 가령 弓裔가 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미륵불을 자처한다든가, 또 뒤에 지방의 향리·촌주층으로 재편되었던 토호층들의 신앙형태가 香徒組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미타신앙의 경향도 엿보이나 주로 미륵불신앙이었다는 점에서 짐작된다. 이 시기의 미륵신앙은 아마도 미륵하생 신앙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전통은 변혁시기에 유행한 미륵신앙이 주로 하생신앙이었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

김유신의 용화향도 단계에서 신라통일기를 이어 고려중기까지는 향도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상층 신분층과 토호층이었으며, 여기에 물론 다수의 민들이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중기 이후 향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향도는 상당히 분화가 이루어져 민들도 독자적으로 향도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말에는 매향이 해안지역에 한정되긴 했지만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물론 향도는 일차적으로 향을 매개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존재하였지만, 일부 상당히 큰 규모의 경우는 향도를 주도한 세력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지역을 통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향도의 본질적인 성격을 지역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다.

어떻든 향도는 불교의 신앙 결사의 한 형태로 나름의 뚜렷한 목적을 지향하였으며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된 특징이 있다. 향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경우에도 수행을 통해 解脫·涅槃에 이르는 것이겠지만, 각 향도는 造石·造像·造塔·造鐘 등 불교의 상징 조형물의 조성이라는 나름대로의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공동 마련이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행사에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염불 계획의 수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향도는 고려후기를 지나 여말선초에 이르면 불교가 국가적·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이르면 향도는 그 성격이 변질된다. 이러한 중에 일부 도서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적 요소와 미

특신앙이 결합한 埋香 신앙이 유행하였다. 곧 신앙공동체로서 향도의 기능이 유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탈각해가면서 본래부터 포용하고 있던 민간신앙만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참고문헌

###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黃壽永 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李基白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87.

경기도 편, 『畿內寺院誌』, 1988.

### 2. 논저

具山祐, 「佛事를 통해 본 향촌사회의 내부 질서」,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研究』, 혜안, 2003.

金昌錫, 「菁州의 祿邑과 香徒」,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김필동, 「삼국~고려시대의 香徒와 契의 기원」,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_\_\_\_\_, 『韓國社會組織史研究』, 일조각, 199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서성희, 「高麗 初 예천 지역세력과 開心寺 석탑 건립」, 『부대사학』 25 · 26합,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2.

尹善泰,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教信仰結社」, 『신라문화』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李泰鎮, 「醴泉 開心寺 石塔記의 分析-高麗前期 香徒의 一例」, 『歷史學報』 53 · 54합, 역사학회, 1972.

\_\_\_\_\_,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李海濬,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14,5세기 埋香事例의 分析-」,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_\_\_\_\_, 『조선시기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 鄭義道, 『新羅而雲大王銘碑 研究』, 『한국중세사연구』 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 蔡尙植, 『13세기 信仰結社의 성립과 사상적 경향』,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 蔡尙植, 『佛敎思想論』,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지식산업사, 1997.
-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국사관논총』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 \_\_\_\_\_,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 崔聖銀, 『竹州 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 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 황철산,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재가승》부락)의 문화와 풍습』, 과학원출판사, 1960.
- \_\_\_\_\_, 『향도(香徒, 鄉徒)에 관하여』, 『문화유산』 1961-2.

<Abstract>

## The Forms of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Associations in Medieval Korea

Chae, Sang-Sik

The first reference to the Buddhist associations, named Hyangdo(香徒), comes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Hwarangdo led by Kim Yu-Sin(金庾信) was called 'Maitreya Buddhist association(彌勒香徒).' Many historical researches are inclined to regard them as the local communities(or founded upon regional relation). This argument, partly, seems true in that it is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that they were based upon the local areas. However, what we should more take a look at is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community of faith.

The Buddhist associations were the religious groups that made use of junipers in the rituals. At first, no one but the royal family and aristocrats could use the junipers to perform the buddhist rituals, cures, and practice ancestor worships in the mountains. As the use of junipers had been generalized, however, the middle and even lower classes could qualify for the membership of these associations.

In short, these groups took the form of the devout Buddhist groups. Their organization largely depended upon the voluntary participants. It was their ultimate end to enter Nirvana(解脫) by practicing asceticism, as well as, more directly, building up the buddhist monuments. Therefore, as for the members,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was as a major problem, and so, they tried to support and take part in all sorts of events hosted by the buddhist temples, and to design scheme for the practice of Buddhist invocation(念佛) in an effort to do this.

These associations had changed in their characteristics as Buddhism was on

the wane in transitional period from Goryeo to Joseon dynasty. Meanwhile, the faith of Maehyang(埋香) combined with other folk beliefs and Maitreya faith was brought into vogue, mainly in some islands and seaside areas. In conclusion, the Buddhist associations showed a trend of taking a step in the direction of stripping the religious tone of Buddhism off them and colouring strongly the folk beliefs that already little by little were accommodated, on the whole, as Neo-Confucianism was the dominant thought in the society.

\* Key Words: The Buddhist Association(Hyangdo), Maitreya Buddhist Association(彌勒香徒), The Community of Faith, The Local Communities, Maehyang(埋香)

·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13일 · 게재결정일: 2012년 11월 28일